

#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 가족체계역동성 · 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 연 화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 1. 서 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부자관계가 주축을 이루던 가족 구조는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가정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기능보다는 우애적 가족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즉, 부부간의 애정과 감정적 유대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효율지향적 가치로 비인간화된 사회조직, 타인을 물질적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보는 태도, 그리고 개체화 등은 가족 특히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나,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부부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절의 부족은 결국 부부간의 결속력이나 가족전체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하며, 심할 경우 가족해체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 선행연구결과(이정우·김연화, 2001), 생활예절수행은 가족적응력을 향상시켜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예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거나 발달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부부간이나 가족간의 조화로운 적응을 위해서는 성숙한 예절의식, 상호주의에 입각한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예절을 실천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생활예절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기초가 되므로, 부부의 예절수행이 가족체계와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정경영의 주체인 부부를 대상으로,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정도와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예절수행 측정도구가 부부의 생활예절수행 정도를 파악하는데 적합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생활예절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부부들이 현재의 가정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예절관련 정책수립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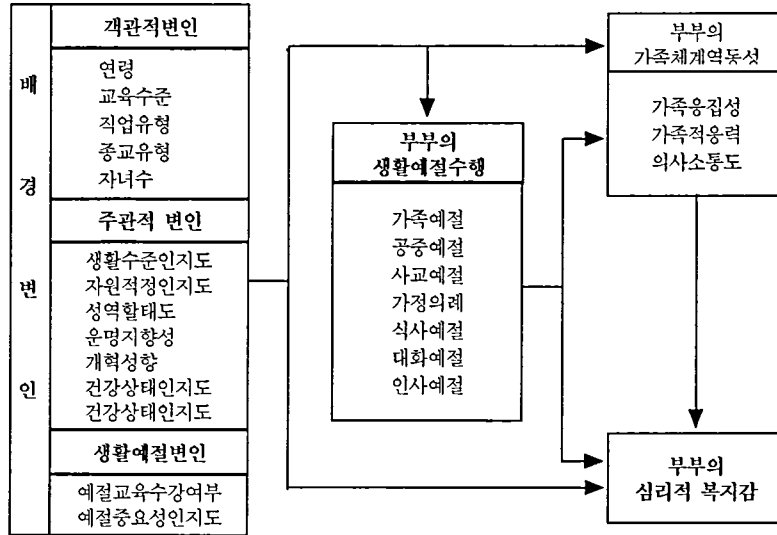
<연구문제 1>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인 수준은 어떠한가, 이들 변인은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부부의 배경변인(객관적 변인, 주관적 변인, 생활예절변인)은 생활예절수행 · 가

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정도에 따라 가족체계역동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도시부부의 배경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 2. 조사도구의 작성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배경,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혼인한 지 만 3년 이상 되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26부(513쌍)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처리는 SPSS/PC WIN을 이용하여, 신뢰계수(Cronbach's  $\alpha$ ),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aired t-test,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연령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40대가 가장 많고, 학력의 경우 남편은 대졸 이상, 부인은 고졸 이하는 많지만 대졸 비율도 높아 고학력자가 많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부부 모두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 남편은 무교, 기독교 순이었고, 부인의 경우는 기독교, 무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인이 종교생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조사대상의 주관적 변인 중 생활수준인지도, 성역할태도, 건강상태인지도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변인 중 예절교육수강여부는 부부 모두 예절교육을 받은

비율은 낮았으나, 생활예절중요성인지도는 부부 모두 생활전반에 걸쳐 예절중요성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

### 1)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구분	생활예절수행															
	가족예절		공중예절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편	3.83	.60	3.97	.61	4.14	.56	4.16	.59	3.88	.53	3.69	.57	3.96	.60	3.94	.42
부인	3.80	.56	4.20	.53	4.27	.48	3.89	.62	4.07	.48	3.62	.54	4.00	.56	3.99	.39
paired-t값 및 유의도	1.20		-7.48***		-4.62***		8.79***		-7.08***		2.21*		-1.24		-1.90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예절수행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남편 3.94점, 부인 3.99점으로 비교적 생활예절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에 전체 생활예절수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가정의례가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인의 경우에는 사교예절수행이 4.2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부인보다 가정의례와 대화예절수행이, 부인은 남편보다 공중예절, 사교예절, 그리고 식사예절수행 정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가정의례에 대한 수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인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가정에서의 제사나 경조·부조 서식, 의례참가 등 의례준비나 진행을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가족체계역동성의 일반적 수준(지면상 표는 생략)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체계역동성의 일반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소통도에서는 남편이(3.41점) 부인보다(3.33점) 부부간에 의사소통도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에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수준이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생각된다.

### 3)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지면상 표는 생략)

부부의 전체 심리적 복지감은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심리적 복지감과 가정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 3. 도시부부의 배경변인이 생활예절수행 ·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 (지면상 표는 생략)

- 1)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부부 모두 예절중요성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운명지향성, 개혁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수, 건강상태인지도, 성역할태도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은 부부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 모두 생활예절중요성인지도와 자원적정인지도가 생활예절수행에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 2) 부부의 가족체계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남편의 경우 예절중요성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자녀수, 개혁성향, 건강상태인지도, 성역할태도 순으로, 부인은 자원적정인지도, 예절중요성인지

도, 개혁성향, 연령, 자녀수, 건강상태인지도, 예절교육수강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원이 적정하다고 인지할수록, 개혁성향적일수록,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예절중요성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족체계역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남편의 경우, 자원적정인지도, 예절중요성인지도, 생활수준인지도, 운명지향성,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자원적정인지도, 운명지향성, 직업유형, 생활수준인지도, 건강상태인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자원적정인지도이나 그 다음으로 남편은 생활예절인지도가, 부인은 운명지향성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에 따른 가족체계역동성 (지면상 표는 생략)

부부 모두 생활예절수행정도에 따라 가족체계역동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그리고 의사소통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배경변인 · 생활예절수행 ·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 1) 남편의 배경변인 · 생활예절수행 · 가족체계역동성 ·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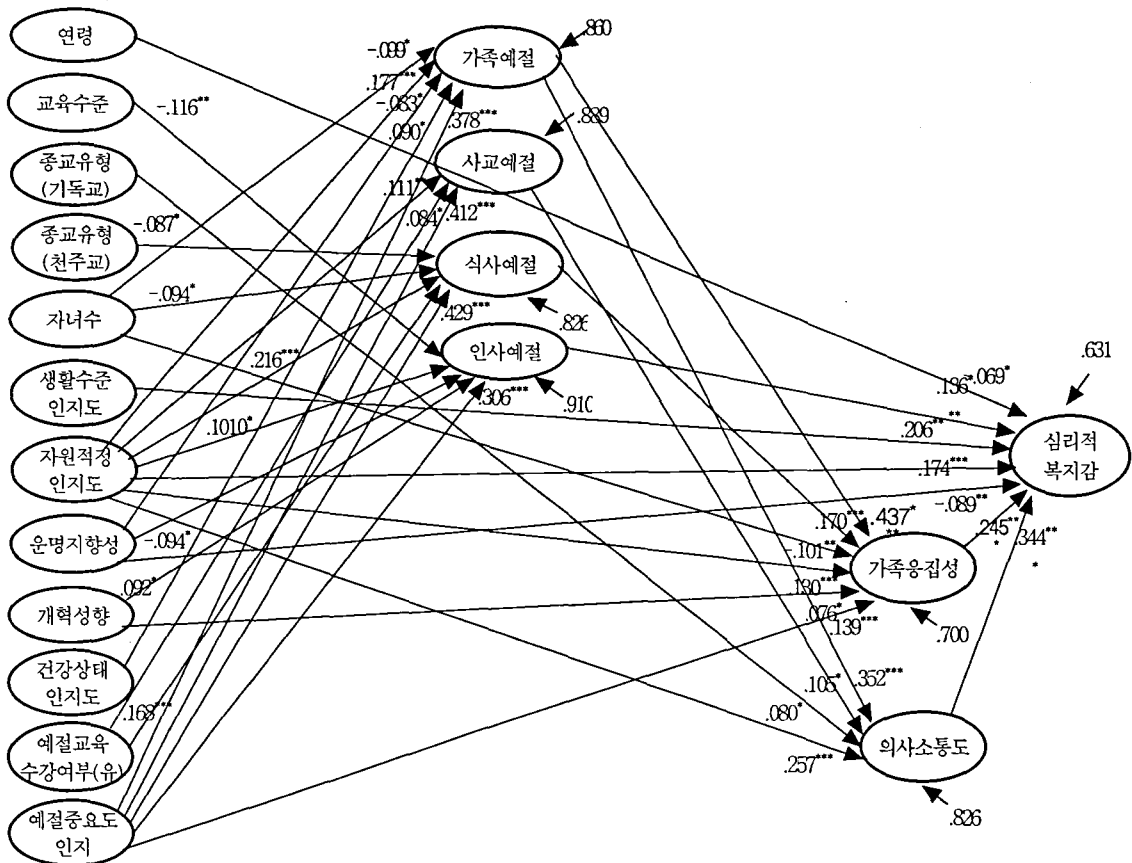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영향변인들의 인과관계 결과는 <표2>와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와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직 · 간접 인과효과 표는 본 고에서는 생략하였다.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2개의 배경변인(가변인 포함)이 생활예절수행(4개변인)과 가족체계역동성(2개변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	
		가족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인사예절	가족 응집성	의사 소통도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객관적 변인	연령	-	-	-	-	-	-	-.069*	
	교육수준	-	-	-	-.116**	-	-	-	
	종교 유형	기독교	-	-	-	-	-	.080*	-
		천주교	-	-	-.087	-	-	-	-
	자녀수	-.099*	-	-.094*	-	-.101**	-	-	
주관적 변인	생활수준인지도	-	-	-	-	-	-	.206***	
	자원적정인지도	.177***	.111**	.216***	.100*	.130***	.257***	.174***	
	운명지향성	-.083*	-	-	-.094*	-	-	-.089**	
	개혁성향	-	-	-	.092*	.076*	-	-	
	건강상태인지도	.090*	-	-	-	-	-	-	
생활 예절 변인	예절교육 수강여부(유)	-	.084*	.168***	-	-	-	-	
	예절중요성 인지도	.378***	.412***	.429***	.306*	.139***	-	-	
생활 예절 수행	가족예절수행	/	/	/	/	.437***	.352***	-	
	사교예절수행	/	/	/	/	-	.105*	-	
	식사예절수행	/	/	/	/	.170***	-	-	
	인사예절수행	/	/	/	/	-	-	.136***	
가족체계 역동성	가족응집성	/	/	/	/	/	/	.245***	
	의사소통도	/	/	/	/	/	/	.344***	
상수		1.521	1.947	1.606	2.484	.252	.249	1.211	
F 및 유의도		34.082***	43.544***	44.930***	19.901***	78.834***	53.475***	90.258***	
R2		.260	.210	.317	.171	.509	.317	.601	

※가변인 : 종교유형-기준 : 무교, 비교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예절교육수강여부-기준 : 무, 비교 : 유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에는 생활수준인지도( $\beta=.206$ ), 자원적정인지도( $\beta=.174$ ), 운명지향성( $\beta=-.089$ ), 연령( $\beta=-.069$ )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수행의 하위영역 중에는 인사예절수행( $\beta=.136$ )이, 가족체계역동성 중에서는 의사소통도( $\beta=.344$ ), 가족응집성( $\beta=.245$ )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들 변인은 심리적 복지감의 전체변량을 60% 설명하고 있다. 한편 배경변인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인사예절수행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유형은 기독교인 경우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수는 가족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식사예절수행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인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 중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인과효과를 지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운명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성향은 인사예절과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다. 또한 건강상태인지도는 가족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도시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예절교육수강여부는 사교예절수행, 의사소통도,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그림 1>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

한편 생활예절수행 변인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생활예절수행 변인 중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등의 변인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가 없지만,

가족응집성 또는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도를 경유하면서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데 간접효과가 증대하였다. 사교예절수행은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식사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을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도 나타냈다. 또한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성은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예측변인 중 두 번째로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자녀수, 자원적정인지도, 개혁성향, 예절중요성인지도, 가족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의사소통도도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자원적정인지도 다음으로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부인의 배경변인 · 생활예절수행 ·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부인의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과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직 · 간접 인과효과 표는 본고에서는 생략하였다.

<표 3>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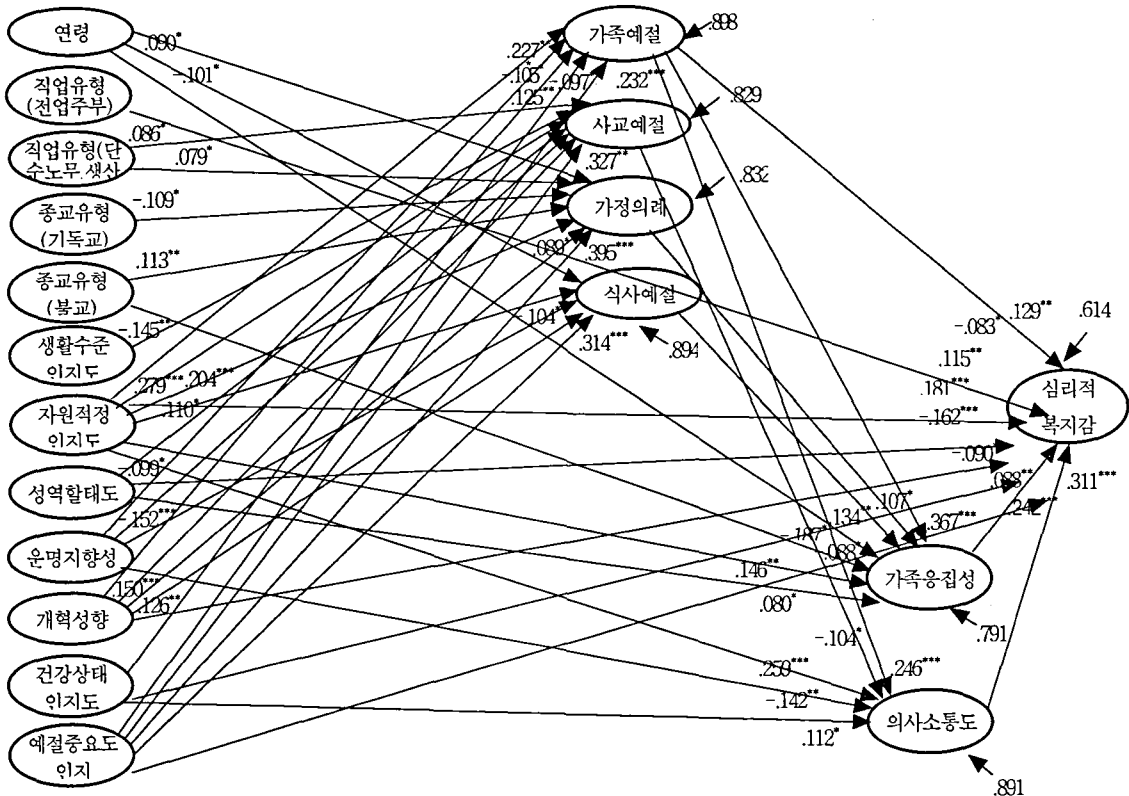
종속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
		가족예절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	
독립변인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객관적 변인	연령	-	-	.090*	-.101*	-.187***	-	-
	직업 유형	전업주부	-	-	-	-	-	-.083*
		단순노무/생산기능직	-	.086*	.079*	-	-	-
	종교 유형	기독교	-	-	-.109**	-	-	-
		불교	-	-	.113**	-	-.088*	-
주관적 변인	생활수준인지도	-	-.145**	-	-	-	-	.115**
	자원적정인지도	.227***	.279***	.204***	.110*	.146**	.259***	.181***
	성역할태도	-	-.099*	-	-	.080*	-	-
	운명지향성	-.105*	-.152***	-	-.104*	-	-.142**	-.162***
	개혁성향	.125**	.150***	.089*	.126**	-	-	-.090**
건강상태인지도	-.097**	-	-	-	-	.112*	.088**	
생활예절 변인	예절중요성 인지도	.232***	.327***	.395***	.314***	-	-	-
생활예절수행	가족예절	/	/	/	/	.367***	.246***	.129**
	사교예절	/	/	/	/	-	-.104*	-
	가정의례	/	/	/	/	.107*	-	-
	식사예절	/	/	/	/	.134**	-	-
가족체계역동성	가족응집성	/	/	/	/	/	/	.242***
	의사소통도	/	/	/	/	/	/	.331***
상수		2.093	2.619	.585	2.755	1.514	1.575	1.188
F		22.352***	29.894***	28.928***	22.674***	35.198***	21.792***	66.616***
R2		.194	.313	.307	.201	.375	.207	.623

※가변인 : 직업유형(부인) - 기준 : 전문직, 비교 : 전업주부, 단순노무/생산기능직, 사무직, 자영직  
종교유형 - 기준 : 무교, 비교 : 기독교, 불교, 천주교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영향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에는 자원적정인지도( $\beta=.181$ ), 운명지향성( $\beta=-.162$ ), 생활수준인지도( $\beta=.115$ ), 건강상태인지도( $\beta=.088$ ), 개혁성향( $\beta=-.090$ ), 직업유형(전업주부  $\beta=-.083$ )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수행 변인 중에는 가족예절수행( $\beta=.129$ ), 가족체계역동성 변인 중에는 의사소통도( $\beta=.331$ ), 가족응집성( $\beta=.242$ )이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

다. 이들 변인은 심리적 복지감의 전체변량을 62%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부인의 연령은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 수행과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전문직보다 단순노무/생산기능적인 경우 사교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종교유형은 기독교 보다 무교의 경우, 가정의례수행과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생활수준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교예절수행과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배경변인 중 가장 큰 인과효과를 지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적정하더라도 사교예절수행이 낮으면 의사소통도가 낮아지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태도는 사교예절수행, 가족응집성, 그리고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운명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과 가족응집성, 그리고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미친다. 개혁성향은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인지도는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을 경유하여, 또는 가족예절과 가족응집성이나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아져 이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의 건강상태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예절중요성인지도는 부인의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2>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

한편 부인의 생활예절수행이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예절수행은 도시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효과를 미치는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다. 즉 가족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이나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 증가에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도 미쳤다. 사교예절수행은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가정의례수행과 식사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을 경유하면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매개변인인 가족체계역동성 변인 중 가족응집성은 도시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도는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가장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와 가족응집성, 가족예절수행정도 등이 인과효과가 높으나 남편에 비해 부인은 자원적정인지도, 가족예절수행, 운명지향성의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생활예절수행과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족자원경영분야를 연구하는 데 생활예절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도시부부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가족예절, 공중의례,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해 살펴 본 생활예절수행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LISREL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활예절수행척도는 부부의 생활예절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이러한 본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부부의 배경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본 결과, 배경변인군은 생활예절수행과 가족체계역동성을 매개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연령, 종교유형(기독교),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운명지향성, 예절중요성인지도와 매개변인인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가 도시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절중요인지도와 자원적정인지도는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도를 통해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간접적인 인과효과가 높았다. 궁극적으로 예절중요도인지와 자원적정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에서 매개변인인 생활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 또는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은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위한 응집성을 증가시키며, 역시 의사소통이 촉매역할을 하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된다. 이로써 생활예절수행은 예절의 기능인 화(和)의 기능으로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매개변인은 생활예절수행변인 중에서는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이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에서는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응집력이 도시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응집성이 가족적응력 보다 복지감이 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이라는 선행연구(Stewart, 1988, 김명자, 1992에서 재인용)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이 심리적 복지감과 선형적인 관계임을 입증한 것으로서, 한국 가정의 경우



선행성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높은 자원적정인지도, 운명통제적 태도, 높은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가족의 응집성과 의사소통도를 원활하게 하며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 복지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가족체계역동성과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예절의 기능인 화(和)의 기능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예절이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능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전반에 걸친 주관적인 만족상태인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족응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족체계역동성에 촉매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또한 가족기능을 위한 예절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생활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하므로,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향상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예절 실천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에도 예절내용이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자원경영에 영향력이 있음과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정교한 척도개발과 다양한 대상으로 생활문화인 예절수행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성,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5.
- 김수연·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33-47.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1996).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71-84.
- 이정우·김경아(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119-132.
- 이정우·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교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지**. 14.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1-16.
- 이정우·김연화(2000).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생활예절교육의 현황과 확산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01). 도시인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 69-86.
-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 및 남성의 직업스트레스, 배우자 지원 및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47-55.
-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_\_\_\_\_(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8-114.
-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3
- \_\_\_\_\_(1996). 가족적응력·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 Bubolz, M. M., Walker, R., & Park, M. S.(1989). Family and economic stressors and quality of life: A rural-urban comparison. *Sociological Abstracts*. North Central Sociological Abstracts, North Central Sociological Association.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 Olson, D. H. & Portner. J.(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 Portner. J., Lavee.(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